

# 중국 사회주의의 종교이론에서 바라 본 지식네트워크:

## 인식구조의 특징과 논자들의 쟁점을 중심으로

박만준(한동대)

### I. 서론

### II.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공산국가 도입과정

1.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특징과 기본구조
2. 소련 파위엘리트 종교인식의 특징

### III. 마레주의 중국도입과정에서 바라본 종교인식

1. 현대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중국도입 그리고 관련 인식
2. 중국사회주의 국가건설, 종교인식 그리고 관련 정책

### IV. 개혁개방, 새로운 중국사회주의의 종교인식 그리고 지식네트워크

1. 중국 사회주의의 종교인식에서 바라본 개혁개방의 의미
2. 현 사회주의중국의 종교문제 그리고 지식네트워크

### V. 결론

### I. 서론

사회주의와 종교는 지금 중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공존하고 있는가? 또 그 중심에는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로 중국식 사회주의의 종교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현-당대를 아우르는 중국의 마레주의 도입과 그 중국화과정에서 나타난 종교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네트워크를 점검해 봄으로서 비로소 그 해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엔겔스-레닌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레주의의 종교이론이 과거 소련과 동구라파에 지역화 되는 과정은 개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현지 상황과 지식인들의 인식네트워크 형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주의의 종교문화를 이루어 왔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의 중심에 있었던 과거 소련의 경우 스탈린과 후르시초프-브레즈네프-안드로포프-체르넨코-고르바초프에 이르는 국가 집권 엘리트들의 종교인식이 시기별 소련의 종교상황과 관련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공산권 종교정책과 종교문화의 형성적 흐름은 중국에서도 모택동-등소평-강택민-호금도에 이르기까지 이들 집권 엘리트들의 종교인식 성향에 따라 중국사회주의의 종교정책과 관련문화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해 왔다.

더욱이 이들 파위엘리트들의 종교인식과 관련정책의 수행과정은 중국내 종교관련 지식 네트워크 형성에 지대한 영향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종교 영역의 사회적 반응과 국가의 입장이 오늘날 중국 사회주의의 종교문화형성의 핵심 변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 대륙내 종교현황과 관련한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마레

주의 종교관에서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사회주의 사회 내 지식네트워크의 논의적 특징까지를 통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현 중국사회주의 종교문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국가와 사회 내 종교관련 지식네트워크의 특징들을 고찰해 보기 위해, 우선 1장에서는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구조적 특징과 소련 내 전과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초기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공산국가 도입과정을 짚어보고, 2장에서는 사회주의혁명기 핵심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중국 도입 과정과 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종교관을 점검해 봄으로서 중국식 사회주의 종교이론의 초기 형성과정을 조명해 볼 것이며, 끝으로 3장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건설과정과 개혁개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를 중심으로 종교영역에 대한 인식적 입장정리와 그에 따른 종교영역 내 지식인들의 반응과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짚어 봄으로서 오늘날 중국사회주의 종교이론과 그에 따른 지식네트워크 형성의 특징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II. 마르크스 종교이론의 공산권 도입과정

### 1. 마르크스 종교이론의 특징과 기본구조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종교관을 우회적으로 세상에 밝힌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하필이면 왜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을 빌어 자신의 종교관을 우회적으로 밝혔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시 프러시아의 시대적 종교부패 상황과 자신의 유물론적 인생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이 종교를 창조론적 관점이 아닌 사회현상적 관점에서 파악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렇다면 마르크스를 위시한 엥겔스와 레닌 등 마레주의자들은 사회현상으로서의 종교 발생과 지속 그리고 발전과 소멸과정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지금까지 모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공산국가 지식인들의 종교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들 지식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마레주의 종교이론을 중심으로 이상하리만큼 종교의 태동과 지속 그리고 발전과 소멸원인에 대해 그리 많지 않은 지면을 활용하면서도 너무도 정확하고 일관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종교인식은 사회주의 종교이론과 그 지식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sup>2)</sup>

마레주의자들 중 종교의 태동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였다. 그들은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자연종교의 형태를 빌어 인류 최초의 종교발생적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식 자체가 사회적 산물이고 인간의 존재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과 타인 그리고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 최초의 제한적인 원시의식들이 자연계의 순수한 동물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인류의 자연종교적인 발생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3)</sup> 바로 이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종교의

1) 마르크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1841)” 라인홀트니버 편, 김승국 역 『마르크스 엥겔스 종교론』 (서울 : 아침출판, 1988), pp. 15-18.

2) D. B 맥코운 저, 강돈구 외역 『마르크스주의 종교이론』 (서울 : 서광출판, 1991) 참조.

태동은 다시 그 인류가 처한 제반조건들에 의해 자연현상의 반영이나 계절변화 등에 대한 경축활동으로 표출됨으로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엥겔스가 <반두링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류사회가 부여한 인격화의 과정이 신의 존재적 본질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sup>4)</sup>

원시 인류사회가 부여한 신의 존재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그 지속원인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언급과 함께 여러 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선 <제179호 켈른일보 사설>과 <유대인문제>에서 종교는 부락공동체에서 민족공동체로 다시 민족공동체에서 국가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종교의 발전적 과정이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과 함께 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엥겔스는 <브르노 바우어와 초기 기독교>라는 글을 통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는데, 마르크스와 함께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통해 종교역량과 사회역량이 인류역사의 태동 이후 꼭 함께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sup> 즉 자연계의 신비한 환상이 종교를 태동시켰고 또 그것이 인격화를 통해 사회적 속성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자연종교의 태동과 사회적 역량의 만남이 초자연이라는 불가지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가 사회성을 띠게 되는 논리적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인류발전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통치계급에게는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통치적 명제를 부여하는 종교의 사회성으로 전환되어 왔고, 비 신성화된 피지배 계층에게는 사회소외구조에 대한 안위적 작용에 의해 종교가 사회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독일이테올로지 비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사회소외구조의 원인임을 밝히고 있듯이, 역시 마르크스는 <유대인문제>에서 통치자의 명제가 종교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헤겔 법철학비판 서언>에서는 비신성한 계층이 그들의 신분적 소외 이유를 사회적 도덕과 사회보편적 명제를 부여해온 종교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고 설명함으로써 종교가 사회계층을 불합리하게 결정해온 보편적 명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은 맥락은 엥겔스가 <브르노 바우어와 원시기독교>를 통해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가 민족이나 사회피지배계층의 안위적 역할을 통해 성장 발전해 왔음을 밝힘으로서 종교가 통치계층에게는 신성을 부여하는 보편적 명제로 소외계층에게는 안위적 역할을 사회적 명제로 발전해 오므로써 그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은 종교가 통치체제에 대한 적응기능, 보수적 기능 그리고 통치자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외투적인 기능들을 통해 세계 종교로 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이러한 점들을 들어 종교비판이 과거 봉건시기를 비롯한 당시 프러시아 정권에 대한 모든 비판의 전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sup>7)</sup>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종교의 생성은 원시 인류가 불가지한 초자연의 힘에 대해 인격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종교의 사회적 지속이 통치자에 대한 신성부여와 피지배자의 비신성에 대한 안위적 보편이론의 제공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3) 마르크스 엥겔스, "德意志意识形态" 《马克思恩格斯全集》, 人民出版社, 1960年版, 第3卷, 第34-35页.

4) 엥겔스, "路德维希·费尔巴哈和德国古典哲学的总结"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4卷, 第220页.

5) 마르크스 엥겔스, "共产党宣言"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1卷, 第217页.

6) 마르크스, "黑格尔法哲学批判 导言"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1卷, 第1页.

7) 施船升, 《马克思主义宗教观及其相关动向》, 四川人民出版社, 1988年版, 第111-126页.

역할을 가지게 됨으로서, 통치체제에 대한 종교의 적응기능과 보수적 기능 그리고 통치행위에 대한 종교의 외투적 기능들과 함께 함으로서 지금까지 그 사회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들을 통해 지속해온 종교에 대해 사회주의, 특히 사회주의 정당이나 국가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 레닌은 <사회주의와 종교>에서 종교가 민족성뿐만 아니라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종교신앙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의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국가는 그들이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전제로 믿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그의 견해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신앙을 결정했던 봉건시기의 신앙자유를 근대화속에서 종교적 관용을 통해 개인의 신앙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계약론자나 자유주의 논자들의 주장을 사회주의적으로 임의해석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sup>9)</sup> 비록 레닌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 자유가 역사 유물의 관점에서 믿을 자유보다는 믿지 않을 자유를 전제함으로서 서구 근대 사상의 종교적 관용이 말하는 포교의 자유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는 믿지 않을 자유를 우선시한 신앙 선택의 자유가 사회주의적 종교자유 근간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개인신앙선택의 자유개념은 국가와 종교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함께 사회주의 종교이론에서 말하는 국가가 종교에게 가지는 중립적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레닌은 <사회주의와 종교>에서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소위 교회가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도 안되고 정치가 교회문제에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레닌은 카우츠키가 말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방임적인 입장이나 트로츠키가 말하는 국가의 인위적인 종교말살정책을 반대했던 것이다.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종교의 존재를 사회주의 완성으로 종교가 소멸되는 날까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 놓겠다는 사회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사회주의의 발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해 <자본론>에서 종교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협소(狹隘)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명백한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을 때 종교의 사회적 근원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과연 무엇이 명백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인가? 이점에 대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히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 사회관계를 통해 모든 유심적인 변론들을 뒤엎음으로서 비로소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1)</sup> 말하자면, 역사적 동력과 철학 종교 기타 이론적 동력이 혁명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비판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으로 명백한 합리성을 가진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정립할 때만이 종교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혁명과 발전은 명백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가지는 비합리성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 발전과 종교는 반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신라인신문 평론>에서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과 공업화가 모든 자연계의 변혁을 가져왔고, 또한 그것이 인간이 자연계에게 가져왔던 모든 유치한 의식과 행위를 종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과학의 발전은 종교의 생성적

8) 列宁, "论工人政党对宗教的态度",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4卷, 第396页.

9) 사회계약론자 홉스의 견해나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 托马斯 霍布斯, 《利维坦》, 商务印书馆, 1985年版; 约翰 洛克, 《论宗教宽容》, 商务印书馆, 1996年版.

10) 马克思, "资本论 第1卷" 《马克思恩格斯全集》, 人民出版社, 1972年版, 第23卷, 第96页.

11) 马克思恩格斯, "德意志意识形态" 同前注, 第43页.

근원인 불가지 영역을 설명해 줌으로서 초자연의 인격화과정이 만들어낸 신의 존재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레주의 종교이론은 사회주의 혁명과 발전이 현실적으로 명백한 사회관계를 만들어 내고 과학의 발전이 자연역량의 불가지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종교는 자연 소멸된다는 자연종교 소멸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마레주의 종교이론이 종교의 생성 발전 지속 소멸과정을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물이해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들이 만들어낸 장기적인 사회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저들에게 종교는 일종의 아편이자 비과학을 전제로 한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인 것이다.

## 2. 소련 파워엘리트 종교인식의 특징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혁명가인 레닌이 정작 소련의 국가살림을 맡아서 집권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스탈린이 초기 소련 국가건설의 20여년을 맡아 왔던 사실로만 거론해 본다면 소련 종교정책의 출발은 스탈린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로마노프 봉건에서 볼셰비키를 거쳐 소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종교와는 달리 스탈린 시기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종교말살 그 자체였다. 노동자국가가 아닌 국가자본주의와 일국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관료제로 점철된 스탈린 집권시기의 종교정책과 그의 종교인식은 어떠했는가? 또 그것은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초기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 혁명에서 국가살림으로 전환되는 혼란스런 시기였다. 이미 레닌이 <사회주의와 종교>를 통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밝혔듯이 1918년부터 볼셰비키 정부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국가와 교회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분리에 관하여>라는 글들을 통해 국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바 있었다.<sup>12)</sup> 1920년대 초에 들어서는 <국가와 교회 분리법령관철문제에 관한 지지>를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법제화하기도 했다.<sup>13)</sup>

반면 종교의 신앙선택적 자유에 대해서는 1918년 7월 선포된 볼셰비키 공화국 헌법 제13조에 아이러니 하게도 종교의 선전과 반종교선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볼셰비키 정권 하에서의 종교자유에 대한 규정은 당시 혼재되어 있었던 종교세력들을 친 볼셰비키 세력으로 영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923-4년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련 공산당과 정부가 종교정책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무신론 교육선전과 과학교육의 강화였다. <반종교선전 선동작업의 진행에 관하여>과 <선전 출판 선동>등의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행동들은 그들의 종교인식이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인위적으로 종교의 소멸을 앞당기려는 그들의 의도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sup>15)</sup> 이러한 분위기는 레닌 사후 스탈린이 집권하게 되면서 더욱

12) 1918년 8월 24일 司法人民委员部决定, "关于贯彻《关于教会同国家分离和学校同教会分离》法令的规定(指示)" 中国社会科学院 世界宗教研究所编译, 《苏联宗教政策》,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79年版, 第26-28页.

13) 1923년 6월 19일 司法人民委员部和内务人民委员部决定, "关于贯彻教会同国家分离法令的指示", 《苏联宗教政策》, 同前注, 第51-53页.

14) 1918년 1월 20일 列宁修改的法律草案, "关于宗教自由教会和宗教团体", 《苏联宗教政策》, 同前注, 第16-18页.

15) 1923년 4월 17日至 25日 俄共第十二次代表大会决定, "关于宣传出版鼓动问题", 《苏联宗教政策》, 同前

가속화 되었는데, 소련정부가 1929년의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에 대한 법규에 대해 그 사무를 맡을 수 있는 동방정교 사무위원회와 종교사무위원회 등 두개의 국가기구를 설립하면서, 이러한 스탈린의 종교인식과 입장을 현실적 정책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 일례가 1929년에서 1930년까지 소련 내 유명 동방정교회 교회가 696개나 폐쇄된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흐름을 반영한 것이 1936년 통과된 소련헌법 제124조였다. 여기에는 분명히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학교와 교회의 분리를 명시하면서도, 종교의식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종교선전의 자유는 명시되지 않았다.<sup>16)</sup> 이것은 1925년 소련연방의 종교신앙자유의 규정과도 크게 다른 것으로서, 바로 이 1936년 스탈린시기 소련헌법 제124조로 공표된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개념이 스탈린 시기를 대표하는 소련 종교정책의 기본 구조였던 것이다. 이러한 스탈린 시기의 극좌적인 종교인식과 그 정책의 실행방향은 지방에서의 성직자 재산몰수나 종교활동인사들에 대한 심판과 진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1936년 정부에 대한 종교관한 신고 건수가 전 소련 내에서 42,392건에 달할 정도였다.<sup>17)</sup> 1940년대에는 무교회촌이나 무교회주가 생겨나기 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시기 소련연방의 25개주에는 하나의 동방정교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20개 주에는 매주 평균 5개 이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sup>18)</sup> 이러한 현상은 교회와 종교세력에 대한 반혁명숙청의 결과였다. 이미 레닌이 말했던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국가가 종교문제에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좌편향적인 인위적 종교말살정책의 결과였던 것이다. 1930-40년대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이러한 인위적 말살 정책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경제정책조정시기의 종교정책과는 사뭇 다른 종교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전환이었다. 1940년대에 들어 스탈린의 인위적인 종교말살정책의 여파는 1948년에서 1987년까지 우크라이나에는 동방정교로서 등록된 단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으며, 전후 이슬람교를 믿는 크림미아의 타타르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은 강제로 이주되는 등 소수민족에 대한 엄격한 종교말살정책으로 진행되기 까지 했다.<sup>19)</sup>

1953년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실정과 관료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적인 수정주의 노선을 선언한 이후에도 종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좌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1954년 7월과 11월 소련공산당은 <무신론 선전중의 중요결정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결의>와 <주민중 과학적 무신론 선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를 통과시켰는데 이 두 문건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무신론교육의 전투성과 공격성강조, 종교신앙자유 원칙을 준수하는 대신 종교의 반사회주의적 본질과 그 위해성을 폭로하여여함, 그리고 종교적 편견에 반대하는 당의 지속된 투쟁과 입장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0)</sup> 이와 같은 종교정책노선은 1963년 소련공산당 중앙이데올로기 위원회 주석인 이리체프에 의해 <작금 당의 이데올로기 공작임무>라는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 내

注, 第46-47页; 1923年 4月 17日至 25日 俄共第十二次代表大会决定 "关于进行反宗教的宣传鼓动工作", 《苏联宗教政策》, 同前注, 第47页.

16) 江流 主编, 《苏联剧变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4年版, 第278-281页.

17) 同前注.

18) 同前注.

19) 同前注, 第282页.

20) 1954年 7月 7日 苏共中央的决议, "关于科学无神论宣传中的重大缺点及其改进措施" 《苏联宗教政策》, 同前注, 第85-90页; 1954年 11月 10日 苏共中央的决议, "关于在居民中进行科学无神论宣传中的错误" 《苏联宗教政策》, 同前注, 第90-95页.

에서 종교적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좌편향적인 종교문제의 해결방식으로 표출됨으로서 행정적 해결방식을 통한 제도적인 종교영역의 소멸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1950년대 초중반을 장식한 말렌코프와 불가닌의 종교인식과 정책은 차제하고서라도 1958년에서 1964년까지 후루시초프의 종교인식과 정책은 스탈린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좌편향적 종교정책 그 자체였는데 이 시기 동방정교 교회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러한 현상은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두드러졌으며, 러시아 상황으로 볼 때는 동방정교 교회 수가 1962년 기준으로 이미 혁명전에 비해 78767개에서 11500개로 떨어지고, 성직자수가 3만에서 1.3만까지 감소될 정도였다.<sup>21)</sup>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소련의 살림을 맡았던 브레즈네프의 종교인식과 정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사뭇 다른 노선을 걷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후르시초프시기 국제 공산의 맥락을 포기한 일국사회주의의 자력갱생적 노력들이 여타 공산진영의 우향우 문제로 뿔어지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위성국가들과 연방에 대한 중앙의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그간 진행되어온 종교에 대한 좌편향적 인식과 정책이 외부세계의 지탄을 받게 되면서 197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종교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76년에서 1977년까지 각 소련연방 가입국들이 소련연방의 법률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종교관련 법률을 수정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1977년 소련이 통과시킨 헌법 제52조에는 소련국민의 신앙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첨가하는 동시에 1964년 성립된 소련 정부 내 종교사무위원회의 직능을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종교단체 수의 하강국면은 점차 회복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초중반의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의 인식과 정책이 말 그대로 브레즈네프의 그것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1966년 소련의 종교단체수가 17507개이던 것이 1985년까지 12438개로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말았다.<sup>22)</sup> 말 그대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의 종교정책은 대내적 사회통전의 필요와 국제공산을 포기한 소련의 대외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낳은 온건정책 그 자체였다.

이와 같은 패턴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등극하면서 종교문제에 커다란 변화로 바뀌었다. 1985년 4월 두 차례의 중앙위원회전체회의와 1986년 소련공산당이 발표한 <소련공산당 강령>에서 무신론 선전은 인민생활 깊숙이 파급되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해서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위협하려는 시도는 단호하게 규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신앙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과 모든 교회가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그간 억눌려 왔던 교회와 각종 종교사원들의 지속적인 개방을 보장했다.<sup>23)</sup>

고르바초프가 종교문제에 대해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된 것은 그가 말한 새로운 사고가 주장되고 나서의 일이다. 1987년 11월 고르바초프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이라는 구호는 사람들에게 기존 살림방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의 전환을 대변하는 말이었다. 우선 고르바초프가 직접 러시아동방정교와 주교공회 회원을 접견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동방정교의 천주년 기념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모든 정교회를 위시한 종교세력을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새로운 러시아

21) 江流 主编, 《苏联剧变研究》, 同前注, 第283页.

22) 同前注, 第284页.

23) 同前注, 第287页.

연방의 종교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련의 개혁개방 추진 세력으로서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종교는 더 이상 소멸대상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종교적 선전을 포함한 신앙의 자유가 사회주의에 반하는 행동도 아니었던 것이다.

### III. 마레주의의 중국도입과정에서 바라본 종교인식

#### 1. 현대 사회주의 종교이론의 중국도입 그리고 관련 인식

그렇다면 이러한 마레주의 종교인식과 공산권 종교정책의 맥락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소련의 종교인식과 관련 정책이 공유제사회로의 급진적 변화나 아니면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온건한 변화인가에 따라 온건과 강경정책으로 점철되어 왔다면, 딱히 전 사회를 대표하는 민족종교가 없는 중국의 경우 종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관련 정책은 사뭇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 마레주의 종교인식을 추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에 대한 그들만의 사회주의 종교인식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역사 구분에서 중국이 아편전쟁을 중요한 시점으로 여기고 있듯이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에서도 아편전쟁은 서구 종교세력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견해를 정리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중국인들은 남경조약의 존 로버트 모리슨과 칼 프리드리히 굿슬라프 선교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날 중국사회주의가 서방 기독교에 대해 가지는 그들의 입장이자 기본 정책인 것이다. 중국의 기독 전래사를 점검해 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원래 중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정통으로 인정받은 아타나시우스의 맥락이 아닌 아리우스파의 일맥인 시리아의 네스토리안들이다. 거슬러 올라가서는 삼한시기부터 이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이후 중국에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130여 수도회와 선교회들이 전파되었다. 그러던 것이 명나라의 해금정책과 함께 서양의 교황권을 이해하지 못했던 청나라 강희제와 옹정제에 의해 100년 금교령이 내려지면서 중국의 기독교 전래는 1800년대 초반까지 그 맥락을 잇는 못했다. 그러던 것이 1807년 로버트 모리슨이 부득이 하게 동인도회사의 힘을 빌려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다시 아편전쟁의 여파 속에 서양 세력의 정치적 침략행위에 동승해 중국에 들어와 그의 아들 존 로버트 모리슨과 독일 선교사인 칼 프리드리히 굿슬라프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의 초안을 중국어로 작성하게 되면서, 당시 최초로 중국에 전래된 서양 기독 신교는 서양제국주의와 함께한 모습으로 중국인의 뇌리에 남게 되었다. 당시 중국인 들이 본 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숭고한 정신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함께 한 잘못된 모습이였다.<sup>24)</sup>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중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진독수는 1920년 신청년에 실었던 <기독교와 중국인>이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당시 기독신교는 근대적인 자유 평등 박애의 숭고한 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에게 제국주의와 함께 한 잘못된 첫인상을 안겨주었다고 피력하고 있다.<sup>25)</sup> 이러한 관점은 1920년 이미 중국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기독교의 자치 자전운동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시 중국지식인들의 서양기독 신교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창당되면서 초대 주석에 임명된

24) 이시악지, 이은자역, 『근대중국의 반양교운동』 (서울 : 고려원출판사, 1992), pp. 157-158.

25) 陈独秀, "基督教与中国人" Jessie G. Lutz编, 王成勉译《基督教在华宣教的检讨》, 台湾国史馆出版, 第109-114页.



진독수의 이러한 입장은 자치 자전 자양이라는 서양종교세력에 대한 공산당의 기본입장인 삼자의 원칙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서 오늘날 종교정책에서 말하는 독립반교원칙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1950년 사회주의 중국건설이후에도 주은래는 <기독교문제에 대한 4번째 회담>이라는 글을 통해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 같은 의견을 피력하면서, 외국 종교세력에 대한 자치 자전 자양이 사회주의 중국의 기본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26)</sup>

말하자면 보이틴 스키나 마링이 코민테른의 지시로 대륙에 와서 사회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미 아편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중국의 지식인들은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기독교의 근대적 정신을 저버리고 제국주의와 함께 서구 기독교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과 사조가 마레주의 종교이론이 중국에 전파와 함께 융화되면서 외세 종교세력을 중국사회주의 식으로 배치하는 자치 자전 자양의 삼자 원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사회주의 중국 성립이후 서구 종교세력에 대한 국가의 기본 입장과 정책이 되었던 것이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혁명이론과 사상의 종결자인 모택동 역시 1957년 발표한 <인민 내부모순의 정확한 처리에 관해서>라는 글을 통해 정교분리의 원칙과 사회주의적인 신앙자유 원칙 그리고 무신론 교육의 원칙이 중국공산당의 기본 원칙이자 정책임을 피력했다.<sup>27)</sup>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편전쟁의 경험을 통한 중국특색적인 역사인식이 마레주의 종교인식이 전해준 정교분리의 원칙, 사회주의적 종교자유 원칙, 무신론 교육의 원칙이외에 삼자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독립반교라는 중국만의 원칙을 만들게 함으로서 중국 사회주의 종교인식과 정책 특유의 4대 원칙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 2. 중국사회주의 국가건설, 종교인식 그리고 관련 정책

과연 중국 사회주의 국가건설 단계에서 이들 원칙들은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되었는가? 분명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 살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 대륙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테마 속에서 이들 원칙의 적용관계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54헌법 이후가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 역시 1954년 헌법 제88조에 분명하게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sup>28)</sup> 과거 소련이 1920년대 경제정책 조정시기 종교선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과는 다르게 중국은 처음부터 종교의 선전이나 포교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필자가 보기에 아마도 당시 중국이 스탈린식 종교인식과 정책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모택동은 종교의 사회적 성질에 대해 <지난 몇 년 당이 소수민족에게 진행한 업무의 주요경험 총결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레닌이 <사회주의와 종교>에서 말한 장기성과 민족성 이외에 국제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sup>29)</sup> 이러한 모택동의 견해에 대해 1955년부터 60년 까지 중국정부에 의해 구성된 도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의 단체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기독교계의 오요중 목사다. 그는 1951년 <공산주의를

26) 周恩来, "关于基督教问题的四次谈话" 《周恩来统一战线文献》, 人民出版社, 1984年, 第182页.

27) 毛泽东, "关于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的问题" 罗广武编《新中国宗教工作大事概览1949-1999》, 北京华文出版社, 2001年版, 第133页.

28) 徐建一, 《中国的人权状况》, 中国青年出版社, 1992年版, 第252页.

29) 列宁, "社会主义和宗教" 《列宁全集》, 人民出版社, 1987年版, 第12卷, 第131-132页.

빌어 기독교의 이상을 실현하자>라는 글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건설 속의 기독교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사회주의 내 기독교 건설은 자치 자전 자양의 삼자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신독신교를 위한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구성을 자처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sup>30)</sup>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중국의 공산당과 국무원 산하 종교사무위원회의 주도 하에 1950년부터 56년까지 있었던 5대 종교단체에 대한 독립반교원칙의 적용을 공식화하는 종교계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선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사회주의 식의 종교영역 건설도, 1958년부터 60년까지 진행된 삼면홍기라는 대약진운동의 기치아래, 자발적인 종교영역건설이 아닌 사회집단화 과정을 통한 인위적인 종교말살정책이 병행되면서 좌편향적 종교인식과 정책으로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sup>31)</sup> 비록 5대 종교단체와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체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민공사와 도시 단위구조의 발전과 함께 각 종교영역의 활동은 날로 쇠퇴하게 되었고, 점진적으로 강화된 무신론 교육은 이러한 종교영역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비록 1961년에서 1965년 경제조정기가 삼자일포의 개념 하에 이와 같은 종교의 쇠퇴를 다소 완화하는 온건적인 종교정책으로 전환된 적도 있었지만, 1966년부터 1976년 까지 진행된 10년의 문화대혁명은 말 그대로 스탈린의 종교말살정책을 중국에 그 대로 도입한 인위적인 종교말살정책 그 자체였다.

문혁시기 4구타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위적인 종교말살 정책은 1966년 5대 종교단체의 폐쇄와 함께 모든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인위적인 파괴활동으로 이어짐으로서 종교영역에 대한 인위적인 소멸작업으로 이어졌다. 심지어 국무원 산하 종교사무국도 이 시기에는 폐쇄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인위적인 말살을 통해 종교소멸을 실현시키려고 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일례로 신강성을 비롯한 회교지역의 경우 문혁기에 6180여개의 무슬림 사원 중 652개의 사원에서 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고, 서장을 비롯한 장전불교지역의 경우에는 5300여 장전불교 사원중 8개만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역활동이 상당히 제한되었다.<sup>32)</sup> 모택동주석의 말을 빌려 본다면, 1956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80만 기독교인과 300만 천주교인들이 일상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불교 도교도 적지 않은 신자들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sup>33)</sup> 그러나 정확히 13년후 문혁이 진행되면서 1950-60년대 건설된 5개 종교단체들이 모두 철퇴를 맞게 된 이후 민족종교가 아닌 일반종교의 경우 중국 전역에서 표면적으로 전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은 스탈린시기의 공포적인 종교정책에서 보여졌던 무종교촌 무종교현 무종교구를 건설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sup>34)</sup>

하지만 이러한 문화대혁명시기의 인위적인 종교말살정책은 마레주의 종교이론에서 조명해 본다면 오히려 사회주의 종교인식과 정책 자체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종교의 소멸이 아닌 종교의 지하화였고 반정부적인 종교세력의 결집이었다.

30) 吴耀宗, "用共产主义来实现基督教理想" 《基督教在华宣教的检讨》, 同前注, 第143-148页.

31) 邓历群外, 《当代中国的宗教工作》上册, 当代中国出版社, 1998年版, 第62页.

32) 同前注.

33) 毛泽东, "1956年2月12日毛泽东同藏族人士的谈话" 罗广武《新中国宗教工作大事概览1949-1999》北京文化出版社, 2001年版.

34) Philip Walters, "A Survey of Soviet Religious Policy", Sabrina petra Ramat edit, *Religious Polic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IV. 개혁개방, 새로운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 그리고 지식네트워크

### 1. 중국 사회주의 종교인식에서 바라본 개혁개방의 의미

그렇다면 마레주의 종교이론에서 본 중국의 개혁개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원래 사회주의 국가 중에 개혁개방을 최초로 한 국가는 중국이다. 그것은 과거 문혁기 삼면홍기의 기치아래 군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획일적인 집단생산방식과 노동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가 가져온 사회주의 실패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선부를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이면에는 거꾸로 부분적 사유제의 인정에서 파생되는 분배구조, 즉 군부에 대한 파괴현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사회주의 과도에서 소외구조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레주의 종교이론의 각도에서 볼 때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지속으로 파생되는 이러한 사회주의 분배구조의 파괴현상과 일정정도의 소외구조의 확대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주의와 종교의 반비례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소외구조에서 그 지속원인을 찾고 있는 종교 역시 불가피하게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적 소외구조의 확대에 따라 동반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종교영역의 성장은 중국의 당국가 입장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사회주의 과도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주의 종교이론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딜레마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개혁개방이전 인위적인 방식으로 종교정책을 풀어 나감으로서 결국 중국 종교영역 전반을 지하화 시켰던 과거 당 국가의 실책을 사회주의 종교이론의 차원에서 다시 만회해야만 하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택동시기 사회주의 종교정책의 실패적 상황들이 개혁개방이후 종교영역에서 밀로부터의 자발적 활동을 전제로 한 종교단체들의 자발적인 흥기에 앞서 중국의 공산당과 국가가 우선적으로 반관반민적인 종교단체의 구성을 주도하고, 문혁기 4구타파로 폐허가 되었던 수많은 종교활동영역들을 국가자금과 사회주의 통전조직들을 총 동원하여 재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등소평은 개혁개방 준비단계인 1978년 제5차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이미 헌법 제46조에 종교를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그리고 무신론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이듬해 1979년 2월에는 형법 제147조에 정부나 기타 사회단체가 개인의 종교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명시함으로서 1930년대부터 스탈린이 주장한 종교의 포교권을 제외한 사회주의식 종교자유를 선포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은 법제도의 마련은 1979년 2월 <전국 통전 민족 종교 공작부문이 투항주의 노선을 벗어나려는 건의에 대한 중공중앙 통전부의 지시보고>를 통해 과거 문혁시기의 종교문제의 좌경화 방지와 개혁개방에 맞는 종교업무의 재건을 강조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주의 종교인식적 방향을 전환하였다.<sup>36)</sup> 이러한 정책방향의 변화는 1982년 흥기에 실은 <사회주의시기 종교문제에 관한 우리당의 기본정책>을 통해 종교문제 해결의 우경화 방지를 강조하고, 같은 해 3월 국무원 19호

35) "中华人民共和国刑法 第147条" 中共中央文献研究室综合研究编, 《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编》, 宗教文化出版社, 1996年版, 第9页.

36) 中共中央国务院, "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知" 中共中央文献研究室综合研究编, 《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编》, 同前注, 第213-221页.

문건 <중국사회주의시기 종교문제에 관한 기본관점과 기본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개혁개방에 맞는 사회주의 종교인식의 건립을 강조하고, 82헌법 제34조와 36조를 통해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라는 사회주의식 종교자유를 확정했다.<sup>37)</sup> 이와 같은 종교영역 재건립에 대한 등소평의 노력은 1989년 <사회단체 등록법>과 1991년 <종교단체 등록관리 실시방법>의 제정을 통해 개혁개방이후 각종 종교의 영역활동에 대한 제반 법제도 건설로 이어졌는데,<sup>38)</sup> 이는 1991년 국무원 제6호 문건 <종교문제를 더욱 잘하기 위한 약간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개혁개방에 맞는 종교인식과 정책에 대한 이론정립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sup>39)</sup>

역시 등소평시기의 종교인식과 정책이 개혁개방시기에 맞는 종교이론의 건립이었다면, 강택민시기의 종교인식과 정책의 방향은 이론이 아닌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주의 종교사무에 대한 법제의 완성에 있었다. 1993년 전국 통전공작회의에서 강택민은 <세마디 말>을 통해 당의 종교정책관철, 법에 근거한 종교사무의 관리강화, 사회주의에 부합되는 종교문화의 건립을 강조했고, 이것은 1995년 삼정의 원칙으로 강조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당과 국가가 지정한 사람, 장소 그리고 종교활동 내용 이외의 종교활동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서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활동들만 합법적인 종교활동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강택민의 주장은 그가 집권하던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40여 건의 종교관련 법제도를 건설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과거 등소평시기 발표한 8가지 법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종교활동의 범주는 당과 정부가 인정한 5대 종교 8개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교인사들이 그들의 종교활동장소에서 법이 정한 종교적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입증해 주었던 사건이 바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진행된 법륜공문제였다. 이홍지에 의해 창안된 법륜공활동은 중국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사회주의 사회내의 신흥종교의 문제였다. 분명 마레주의 종교이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흥종교의 태동은 사회주의의 발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종교문화의 후퇴를 말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법륜공 세력이 1997년부터 이듬해인 1998년까지 종교단체건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인식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법륜공세력이 홍콩, 심천, 무한, 천진 등지에서 보여준 법륜대법활동이나 1998년 북경 천안문 중남해에서 보여준 법륜공단체인정을 위한 대규모 시위행위들이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종교활동의 전형적 사례로 비추어 졌고, 또 그것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제도밖 종교활동에 대한 법제도적인 입장정리로 이어지게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1999년 7월 국무원 민정국이 내린 <법륜대법 연구회 단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정국결정>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 통보>였고, 바로 이듬해인 2000년 반사이비종교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반사이비 종교법이란 그 종교의 본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에 중국사회주의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종교활동은 정통 종교이고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과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활동은 사이비종교에 속한다는 것을 헌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택민 시기의 중국 사회주의 종교인식과

37) 罗广武,《新中国宗教工作大事概览1949-1999》,同前注,第3页.

38) 中共中央国务院 民政部引发,“宗教社会团体登记管理实施办法”国家宗教局 政策法规司编《全国宗教行政法规规章汇编》,宗教文化出版社,2000年版,第8-9页.

39) 中共中央国务院,“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知”中共中央文献研究室综合研究编,《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编》,同前注,第213-221页.

법제도들은 호금도 시기 2004년 426호 국무원 문건을 통해 제정된 <종교관리 사무조례>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중국의 각종 종교영역에 적용되어 왔다.<sup>40)</sup>

## 2. 현 사회주의중국의 종교문제 그리고 지식네트워크

그렇다면 이러한 당과 정부의 정책적 흐름 이면에 개혁개방이후 각종 종교영역이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와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각종 종교영역이 앓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대륙 내 중국의 종교상황 관련 지식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고 있다.

우선 서구 기독교에 대한 제반문제와 종교지식 네트워크의 형성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말하는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삼자의 원칙을 근거로 한 독립반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제는 비단 기독교에만 적용되는 개념만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이후 유일하게 기독교 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제외하고,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중국내 70여 기독교 교파에 대한 불인정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들 70여 기독교 교파의 단체구성과 활동이 중국 대륙 내에서는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주의 식 종교자유의 개념 때문에 해외의 기독교 세력이 중국에서 전교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비단 이러한 중국내 독특한 기독교 상황은 중국사회주의와 기독교라는 그들 특유의 종교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국사회주의에 부합된 중국기독교신학의 건립문제이다. 과연 사회주의에 부합된 기독교신학의 건립이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오요중 목사의 과제였지만, 개혁개방이후에는 다년간 삼자애국운동위원회를 맡았던 정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sup>41)</sup> 비록 개혁개방이전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제1, 2대 회장이었던 오요중 목사와 개혁개방이후 제3, 4, 5회 주석이었던 정광훈이 1998년까지 중국사회주의에 부합되는 삼자신학의 건립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그의 신학박사 학위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협 부부석의 위치까지 올랐던 그의 여정이 이제는 완년의 숙제로 남아있게 된 것이고, 특히 제4대 라관중 장로와 제5대 이검홍 목사가 삼자위원회의 주석으로서 그 임무를 맡고 있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중국내 18개 신학대학 내에는 아직도 이렇다 할 삼자신학이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로 중국 종교문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티칸과 중국천주교의 관계정립문제이다. 바티칸과 중국이 단교된 것은 1951년부터였다. 현재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중국과 단교 상태에 있는 20여 국가들중 유럽에서 유일하게 단절관계에 있는 것도 바로 바티칸이다. 바티칸과 단교된 상황에서 중국천주교는 과연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단교이후 중국과 바티칸의 대립은 바로 중국내 천주교의 존재에 대한 정통성시비였다. 1950년대 초 레지오 마리에의 활동이 반공의 성향을 띠면서 줄곧 바티칸은 중국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반대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성향의 지속적인 흐름이 지속되면서 중국정부는 중국천주교협회를 통해 1958년부터 자체적인 주교임명을 하게 했고, 이것은 바티칸을

40)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中华人民共和国宗教事务条例426号令" 《宗教》, 2004年, 第61期, 第4-7页.

41) 丁光训, 《丁光训文集》, 译林出版社, 1998年版. 참고.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됨으로서 양측의 극한대립을 지속해 왔다. 개혁개방이후에도 여타 종교영역에 대한 재건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반교의 원칙에 의해 중국의 자체적인 천주교 협회와 교무위원회 그리고 주교단이라는 3개의 연합적인 종교단체를 구성하게 했다. 1988년부터 바티칸이 중국에 임명한 화교출신 임가준주교의 대륙내 천주교접촉을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1998년 새로이 임명된 대만의 단국새 주교에 대해서 중국천주교는 어떠한 접촉이나 왕래도 인정하기 않았다. 이러한 양측의 신경전은 바티칸이 광주주교로 지명한 등이명 주교나 공품매 주교의 임명을 중국천주교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천주교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대만의 단국새 주교가 퇴임하고 홍콩의 진일군 주교가 중국의 대표적인 주교로 바티칸에 의해 임명되면서 중국내 천주교 주교의 임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면의 전환도 역시 중국 스스로 임명한 주교들의 반대로 반 등이명 주교 세력이 중국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천주교 애국회 부주교인 유백년주교에 의해 진일군 주교의 반공성향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립적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sup>42)</sup>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천만 중국내 천주교 신자와 바티칸의 관계개선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바티칸에 대한 관계개선 움직임에서도 그 정통성의 문제로 인해 쉽게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 중국종교문제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중국불교와 도교의 문제이다. 유일하게 중국태생 종교라고 볼 수 있는 도교의 경우는 대외적인 접촉문제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청나라때 까지도 흥성했던 전진교와 청일도의 도교적 맥락은 문혁기의 종교말살이후 개혁개방이후의 종교환경의 변화에도 좀처럼 만회되고 있지 못하다. 전진교를 중심으로 한 북경과 상해의 백운관이 대학수준의 합법적인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31개 유명 도교사원의 교육기관과 지식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할 만한 조직역량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바로 이 도교 지식네트워크의 미비 문제가 현재 중국도교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불교는 개혁개방 이전보다 이후가 중국사회주의 종교정책에 의해 더욱 큰 대접을 받고 있다. 원래 레닌이 <사회주의와 종교>에서 언급한 모택동 주석이 민족성 장기성에 대해 국제성 복잡성과 균중성을 더해 종교5성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모택동 주석이다. 1958년 당 중앙 종교공작회의에서 중국사회주의의 종교사회학적 분석틀로서 받아들여진 종교오성론을 개혁개방이후 종교계에서 1981년부터 주장한 이가 불교 사상가인 월박초다.<sup>43)</sup> 중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티벳 장전불교의 문제나 남전 상좌부불교의 문제 그리고 8개 종파의 불국계 융합문제가 그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월박초가 말한 이 5성론에 근거한 불교협회의 사무와 지식네트워크는 지금까지도 중국불교 지식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기독교의 정통성문제를 중국불교가 세계 불교대회를 대륙과 홍콩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중국내 종교상황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소수민족 종교인 이슬람교의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11개의 이슬람

42) 박만준, "중국대륙과 바티칸 관계개선에 대한 사전적 고찰" 『중소연구』 제31권 제1호 2007년 봄., pp.57-97. 참조.

43) 越补初, "落实宗教政策还须花大力气" 《宗教》, 南大宗教研究所, 1984年, 第2期, 第2-3页.

대학 중 3개를 해외 이슬람 기금을 통해 지을 정도로 대외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 2012년부터는 메카 성지순례를 참여하는 등 해외 이슬람에 대한 중국내 무슬림의 상황을 적극 선전함으로써 1990년대 말부터 불어온 신강위그루 리더아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처하고 있다.

바로 중국사회주의 종교정책과 인식에 동조하고 있는 이들 5대 종교 지식네트워크 인사들이 앞서 말한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국가적으로 판정하는 국무원 산하 종교문제 연구소의 핵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마레주의 종교이론은 사회주의 혁명과 발전이 현실적으로 명백한 사회관계를 만들어 내고 과학의 발전이 자연역량의 불가지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종교는 자연 소멸된다는 자연종교 소멸이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레주의 종교이론이 종교의 생성 발전 지속 소멸과정을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물이해와 종교의 사회적 기능들이 만들어낸 장기적인 사회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종교가 일종의 아편이자 비과학을 전제로 한 일종의 사회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마레주의 종교이론을 근거로 진행된 소련사회주의의 종교인식과 관련 정책들이 공유제사회로의 급진적 변화나 아니면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온건한 변화인가에 따라 온건과 강경정책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와 같은 소련의 온건과 강경의 선택문제에 국한되었던 소련의 종교정책과는 달리 딱히 전 사회를 대표하는 민족종교가 없는 중국의 경우 종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관련 정책은 사뭇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그것은 한편으로 마레주의 종교인식을 추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에 대한 그들만의 사회주의 종교인식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아편전쟁의 경험을 통한 중국특색적인 사회주의 역사인식은 마레주의 종교인식이 전해준 정교분리의 원칙, 사회주의적 종교자유의 원칙, 무신론 교육의 원칙이외에 삼자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독립반교라는 중국만의 원칙을 만들게 함으로서 중국 사회주의 종교인식과 정책 특유의 4대 원칙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사회주의 종교인식과 문화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시기의 인위적인 종교말살정책은 마레주의 종교이론에서 조명해 본다면 오히려 사회주의 종교인식과 정책 자체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과거 스탈린 시기 무종교현 무종교촌 건설이라는 인위적인 종교말살 정책으로 회귀하게 했고, 급기야 종교의 소멸이 아닌 종교의 지하화라는 사회주의 종교정책의 실패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중국이 개혁개방에 대한 마레주의 종교이론적 분석을 통해 종교영역에 대한 재건 움직임으로 극적인 국면전환을 갖게 하였다. 그것은 개혁개방이후 선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어쩔 수 없이 균부에 대한 파괴현상을 동반하고 당분간 개혁개방의 사회주의 과도에서 소외구조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종교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형식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정부는 1980년 이후 5대 종교관련 8개 종교단체를 재구성하고 문혁기 파괴되었던 모든 종교활동장소를 국비를 들여 재건함으로써 지하화된 중국의 종교세력을 중국사회주의의 통전적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중국사회주의

종교정책과 인식에 동조하고 있는 5대 종교관련 지식네트워크 인사들이 오늘날 중국내 종교문제에 대해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국정부가 말하는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판정하는 국무원 산하 종교문제 연구소의 핵심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현재 중국내 존재하고 있는 각종 종교활동은 사회주의에 부합되는 신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30여년 지속해온 중국사회주의 종교문화의 짧은 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참고문헌

- 마르크스,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1841)” 라인홀트니버 편, 김승국 역 『마르크스 엥겔스 종교론』 (서울 : 아침출판, 1988)., pp. 15-18.
- D. B 맥코운 저, 강돈구 외역 『마르크스주의 종교이론』 (서울 : 서광출판, 1991).
- 이시악저, 이은자역, 『근대중국의 반양교운동』 (서울 : 고려원출판사, 1992)., pp. 157-158.
- 박만준, “중국대륙과 바티칸 관계개선에 대한 사전적 고찰” 『중소연구』 제31권 제1호 2007년 봄., pp.57-97.
- 马克思恩格斯, “德意志意识形态” 《马克思恩格斯全集》, 人民出版社, 1960年版, 第3卷, 第34-35页.
- 恩格斯, “路德维希·费尔巴哈和德国古典哲学的总结”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4卷, 第220页.
- 马克思恩格斯, “共产党宣言”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1卷, 第217页.
- 马克思, “黑格尔法哲学批判 导言”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1卷, 第1页.
- 施船升, 《马克思主义宗教观及其相关动向》, 四川人民出版社, 1988年版, 第111-126页.
- 列宁, “论工人政党对宗教的态度”, 《马克思恩格斯选集》, 人民出版社, 1975年版, 第4卷, 第396页.
- 托马斯 霍布斯, 《利维坦》, 商务印书馆, 1985年版 ; 约翰 洛克, 《论宗教宽容》, 商务印书馆, 1996年版.
- 马克思, “资本论 第1卷” 《马克思恩格斯全集》, 人民出版社, 1972年版, 第23卷, 第96页.
- 1918年 8月 24日 司法人民委员部决定, “关于贯彻《关于教会同国家分离和学校同教会分离》法令的规定(指示)” 中国社会科学院 世界宗教研究所编译, 《苏联宗教政策》,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79年版, 第26-28页.
- 1923年 4月 17日至 25日 俄共第十二次代表大会决定, “关于宣传出版鼓动问题”, 《苏联宗教政策》,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79年版, 第46-47页 ; 1923年 4月 17日至 25日 俄共第十二次代表大会决定 “关于进行反宗教的宣传鼓动工作”, 《苏联宗教政策》, 同前注, 第47页.
- 江流 主编, 《苏联剧变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4年版, 第278-281页.
- 1954年 7月 7日 苏共中央的决议, “关于科学无神论宣传中的重大缺点及其改进措施” 《苏



联宗教政策》，中国社会科学出版社，1979年版，第85-90页。

1954年 11月 10日 苏共中央的决议，"关于在居民中进行科学无神论宣传中的错误"《苏联宗教政策》，中国社会科学出版社，1979年版，第90-95页。

陈独秀，"基督教与中国人" Jessie G. Lutz编，王成勉译《基督教在华宣教的检讨》，台湾国史馆出版，2001年版，第109-114页。

周恩来，"关于基督教问题的四次谈话"《周恩来统一战线文献》，人民出版社，1984年，第182页。

毛泽东，"关于正确处理人民内部矛盾的问题" 罗广武编《新中国宗教工作大事概览1949-1999》，北京华文出版社，2001年版，第133页。

徐建一，《中国的人权状况》，中国青年出版社，1992年版，第252页。

列宁，"社会主义和宗教"《列宁全集》，人民出版社，1987年版，第12卷，第131-132页。

吴耀宗，"用共产主义来实现基督教的理想" Jessie G. Lutz编，王成勉译《基督教在华宣教的检讨》，台湾国史馆出版，2001年版，第143-148页。

邓历群外，《当代中国的宗教工作》上册，当代中国出版社，1998年版，第62页。

毛泽东，"1956年2月12日毛泽东同藏族人士的谈话" 罗广武《新中国宗教工作大事概览1949-1999》北京文化出版社，2001年版。

"中华人民共和国刑法 第147条" 中共中央文献研究室综合研究编，《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编》，宗教文化出版社，1996年版，第9页。

中共中央国务院，"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知" 中共中央文献研究室综合研究编，《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编》，宗教文化出版社，1996年版，第213-221页。

中共中央国务院 民政部引发，"宗教社会团体登记管理实施办法" 国家宗教局 政策法规司编《全国宗教行政法规规章汇编》，宗教文化出版社，2000年版，第8-9页。

中共中央国务院，"中共中央国务院关于进一步做好宗教工作若干问题的通知" 中共中央文献研究室综合研究编，《新时期宗教工作文献选编》，同前注，第213-221页。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宗教事务条例426号令"《宗教》，2004年，第61期，第4-7页。

丁光训，《丁光训文集》，译林出版社，1998年版。

越补初，"落实宗教政策还须花大力气"《宗教》，南大宗教研究所，1984年，第2期，第2-3页。

Philip Walters, "A Survey of Soviet Religious Policy", Sabrina petra Ramat edit, Religious Policy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